

政治教育의 接近方法에 관한 研究

權 中 周*

目 次	
I.	序 論
II.	政治教育의 概念
III.	體系水準의 接近法
IV.	個人水準의 接近法
V.	過程的 接近法
VI.	結 論

I. 序 論

政治教育은 교육의 많은 領域 中에서 政治를 主題로 하는 교육의 한 분야이다. 그러나 政治教育은 다른 部分의 教育에 비하여 一般的인 認識이 否定的인 경우가 많다. 그것은 아마도 教育을 政治의 道具로 이용했던 過去의 歷史的 經驗이나 이에 대한 일부 잘못된 認識에 연유한 不信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政治教育에 대한 부정적인 見解가 교육에서 政治的 現實을 客觀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拒否하거나 國家發展에 있어서의 政治教育의 役割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現代는 政治化의 時代로 政治가 국가는 물론 人間의 運命까지도 좌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政治에 대한 知識을 배양하고 政治에 대한 올바른 價値判斷을 길러주는 政治教育은 그 중요성이 더욱 요청되는 것이다.

政治教育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學校와 기타의 公式的인 다른 教育機關에 의한 政治學習을 말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政治教育을 담당하는 政治教育의 기관에는 學校 이외에 家庭, 同僚集團, 매스미디어, 社會集團 등이 있으며 이들은 個人의 政治定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學校는 意圖적으로 계획된 敎科課程을 통하여 市民的인 政治意識이나 信念 및 態度를 주입할 수 있어 統治集團의 理念을 具現하는 주요한 手段이 될 수 있다.

*政治學 博士, 전북대학교·전주교육대학교 시간강사

學校의 이러한 機能 때문에 學校의 政治教育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教育의 政治的 中立에 관한 것이다. 教育은 政治的으로 中立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認定하는 命題이다. 그러나 正當性 없는 統治集團이 그들의 統治理念을 주입하고 統治行爲의 正當性을 教育을 통하여 얻으려 한다면 教育은 政治의 道具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偏向된 意識을 가진 教育集團이 특정의 理念을 學校教育을 통하여 未來의 주인인 學生들에게 주입하려 한다면 教育의 純粹性은 사라질 것이다.

政治教育에 대한 概念은 觀點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政治安定 및 體制維持的 側面과 市民的 資質育成을 강조하는 側面이 있다. 市民的 資質育成은 넓게 보면 人間教育이며 政治安定 및 體制維持의 측면은 統治集團의 理念과 正當性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教育을 통한 統治集團의 이념구현과 정당성 확보는 政治教育의 당연한 機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政治權力이 正當성이 있고 教育의 內容이 價値가 있을 때 可能하다.

政治教育에는 이와 같은 價値상의 미묘한 問題들이 많고 연구자의 主觀的인 價値判斷이 개제될 여지가 많아서 研究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 政治學에서 政治教育의 연구를 위한 接近方法은 일반적으로 疏忽하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政治教育은 純粹學問領域보다는 技術的인 領域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政治教育의 方法論은 공식적인 학교의 政治教育 科目으로 등장한 國民倫理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方法論은 國民倫理라는 학문적 性格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教科目的 內容과 範圍에 대한 論議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政治教育은 학교의 공식적인 教科目에 의한 教育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學校教育 외의 媒體에 의하여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意圖的, 無意圖的 형태의 教育을 포함하는 社會化概念으로 파악하여 教育대상의 社會化 過程과 그 成果를 중심으로 接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政治教育의 인접 분야인 政治社會化의 接近方法을 참고하여 巨視的 水準과 微視的 水準으로 나누어 알아 보았다. 거시적 수준은 體系水準의 接近法이며 미시적 수준은 個人中心과 過程中心이 있다. 政治教育을 넓게보면 政治社會化이지만 政治教育과 政治社會化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먼저 政治教育의 概念을 알아보고 接近法을 논하였다.

II. 政治教育의 概念

政治教育은 教育의 原理에 의하여 支配 當하는 많은 教育들 중에서 政治를 主題로 하는 教育의 한 分野에 불과하다. 그러나 政治教育은 어떠한 다른 教育보다도 問題視되고 爭點化되었으며 強調되고 重要視된 반면에 背안시되거나 應分の 學問的 待遇를 받지 못한 것도 事實이다. 따라서 政治教育에 대한 學問的 研究가 始作된 것은 最近의 일이지만 政治教育에 대한 關心과 論議는 다른 學問에 뒤지지 않을 만큼 오래되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東洋의 孔子 등은 偉大한 哲學者였지만 또한 偉大한 政治教育者였다. 플라톤의 共和國(Republic)은 教育에 대한 關心으로 가득하다. 그는 共和國에서 相當히 綜合的인 政府主導 教育計劃을 通하여 젊은이를 善良한 市民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力說하였다. 그리고 理想國家는 安定된 國家인데 國家의 安定은 市民에 대한 適切한 教育을 통하여 이룩될 수 있다고 하였다¹⁾.

아리스토텔레스도 政治教育을 重視하여 立法者들은 當然히 젊은이들의 教育을 가장 重要한 關心事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國民性과 憲法構造間에 緊密한 關係가 있다고 보고 各其 다른 政治制度에는 그에 合當한 國民의 政治的 氣質과 價値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孔子는 家族生活과 政治的 態度를 關聯시켜 생각하여 孝를 強調하고 三綱五倫에 의한 人間關係의 原理를 遵守하도록 教育할 것을 주장하였다.孔子는 政治的 安定을 目的으로 하는 具體的인 信念을 敎化하지는 않았지만 家族關係의 秩序를 強調하여 그것이 權威에 대한 一般化된 態度를 形成하여 政治安定을 이룩하게 하는 말하자면 間接的인 政治教育을 試圖한 셈이다.

이 외에도 토마스 모어(Thomas More), 밀(J.S.Mill), 로크(John Locke), 루소(J.J.Rousseau) 등 많은 思想家와 學者들 그리고 政治的 安定이 그들의 運命과 直接的으로 關係를 갖는 政治支配者들도 政治秩序의 安定과 政治體制의 發展을 위해 政治教育의 重要性을 지적하였다. 특히 루소는 兒童期의 政治的 敎化를 주장하였는데 그는 “國民形成에 魂을 불어 넣어주고 愛國的으로 되도록 그들의 判斷과 趣

1) Dean Jaros, *Socialization to Politics* (New York: Praeger Publisher, Inc., 1973), pp. 9~12.

味の 方向을 잡아주는 것이 教育”²⁾ 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國民教育을 철저히 強化하는 것은 軍事力을 強化하는 理想으로 나라의 安定과 維持를 위해 더욱 더 중요하다”³⁾고 한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의 獨逸 國民에게 告함이라는 演說은 자주 引用되는 例이다.

現代的 意味에서 政治教育을 研究한 先驅者의 學者로는 메리암(Charles Merriam)을 들 수 있다. 그는 西歐 8個國家들에 있어서의 市民意識에 대한 調査를 하였는데 여기에서 學校가 政治共同體의 市民教育의 核心的인 役割을 하고 있다고 主張하였다. 알몬드(Gabriel Almond)와 버바(Sidney Verba)의 調査研究도 大部分의 國家들에 있어 教育이 政治社會化 過程에 있어 하나의 決定的인 要素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즉, 教育과 政治的 認知 및 參與와는 肯定的인 相關關係가 있으며 個人들의 政治的 態도의 變化에 影響을 미치는 變數들 중에서 教育이 가장 큰 것이라고 하였다.⁴⁾ 政治教育에 관한 研究는 政治社會化의 연구와 더불어 發達하였으나 오히려 政治支配者에 의하여 主導되어 政治教育에 관한 認識을 歪曲되게 하는 結果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現代 世界에서 政治는 때때로 人間의 마음을 얻기 위한 鬪爭(a battle for men's minds)⁵⁾으로 認識되어 오늘날의 政治教育은 民主主義國家 全體主義國家를 막론하고 重要시되고 強調되고 있다. 民主主義國家에서는 民主主義的 價値의 注入, 民主的 政治參與 그리고 政治權力的 正當性 確保의 手段으로 그리고 全體主義國家에서는 人間과 社會를 改造시킬 수 있는 이데올로기 注入의 手段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共產主義와 資本主義의 이데올로기적 극심한 對立은 政治教育으로 하여금 다른체제에 대한 한 體制의 優越性을 強調하게 한다.

이와 같이 政治教育의 重要성과 그 기능은 오래 전부터 認識되고 강조되어 왔지만 政治教育이 民主市民을 위한 바람직한 인간상을 誘導하는 순기능보다 特定 政治體制나 政權 또는 特定政策에 順應하는 教育으로 惡用되어온 경우가 많았다. 最近에야 政治教育이 學問的인 연구의 課題로 取扱되면서 體系的인 研究가 시작되었

2) 앞의 책, p. 12.

3) B. G. Massialas, *Education and Political System* (New York: Addison-Wesley Pub. Co. Inc., 1969), pp. 1~2.

4) Gabriel Almond and Sidney Verba, *The Civic Cul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p. 379.

5) Dean Jaros, 앞의 책, p. 7.

으나 아직도 未治한 事實이다.

政治教育에 대한 概念은 觀點에 따라 學者에 따라 多様하지만 政治安定 및 體制維持的 側面과 市民的 資質育成을 강조하는 側面으로 나눌 수있다. 政治教育을 “政治秩序 내지 政治體制的 安定을 維持하기 위하여 國民의 支持를 形成하는 것”⁶⁾ 이라고 한 테퍼(Ted Tapper)의 定義나 “政治體制的 價値觀과 規範을 構成員이 內面化하는 過程 혹은 政治體制的 規範과 價値觀을 한 世代에서 다음 世代로 傳承해 가는 過程”⁷⁾이라고 한 마시아라스(B.G.Massialas)의 見解는 前者에 속한다고 할 수있다.

여기서 말하는 政治秩序 또는 政治體制라는 말은 相當히 包括的인 意味로 해석하여 政治體制的 上位概念인 社會體制나 文化體制를 包含하는 意味가 되어야한다. 왜냐하면 政治體制的 安定과 維持를 위해서는 社會體制 등 다른 體制들과 一貫性과 統合性을 形成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의 두 概念定義는 政治體制的 安定과 維持를 강조한 나머지 變化내지 發展을 등한시하는 弱點이 없지 않다. 이러한 缺點을 補完하기 위하여 이스튼(David Easton)은 體制的 維持 대신에 ‘體制的 持續’이라는 用語를 쓰며⁸⁾, 그린슈타인(F.Greenstein)은 政治教育의 一次的 課題는 政治秩序의 維持에 있지만 그렇다고 國民으로 하여금 既存의 社會的 規範에 항시 同調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主張한다.⁹⁾

政治教育을 民主市民으로서의 資質培養을 위한 教育課程으로 把握한 立場에서 랑게벨트(W.Langeveld)는 政治教育을 “政治에 관한 研究와 政治過程의 參與에 필수적인 知識과 技術, 態度를 獲得하는 것”¹⁰⁾ 이라고 하면서 政治社會化와 關聯하여 “直接的인 政治社會化와 間接的인 政治社會化의 意圖的인 形態”¹¹⁾라고 한다. 또 “政治生活領域에 대해 생각하고 活動하는 能力과 自身을 育成하는 教育的 努力過

6) Ted Tapper, *Political Education and Stabilit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6), pp. 2~3.

7) B. G. Massialas, 앞의 책, pp. 20~21.

8) D. Easton, "The function of formal education in a political system," *School Review*, Vol.65(1957), p.309.

9) F. I. Greenstein, "A Note of the Ambiguity of Political Socialization Definitions, Criticisms and Strategies of Inquiry," *Journal of Politics*, Vol. 32(1970), p.973.

10) Willem Langeveld, *Political Education for Teenagers*, 朴容憲 譯, 『政治教育』(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82), p.11.

11) 앞의 책, p.13.

程”¹²⁾이라고 規定한 定義 等도 같은 側面의 概念定義라고 할 수있다. 이러한 概念 定義는 政治體制의 安定과 維持라는 前提를 하지 않고 政治生活를 圓滿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能力과 自身을 育成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 健全한 民主市民教育이라고 할 수있다.

한편 政治教育의 概念을 廣의의 政治教育과 狹의의 政治教育으로 나누어 定義하는 경우도 있다.¹³⁾ 朴容憲은 넓은 意味의 政治教育으로 “한 나라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人間教育”이라고 하면서 理想的 觀點과 現實的 觀點에서 說明한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되는 바람직성의 與否는 한 나라의 文化傳統과 支配的 價値觀, 規範 그리고 國家理念과 政治目標 等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으로 文化와 政治理念을 달리하는 各各의 나라들이 그들의 社會的 狀況에 대한 올바른 判斷과 適應能力을 갖춘 바람직한 人間性의 創造를 위한 人間教育이 바로 넓은 意味의 政治教育이라는 것이다. 政治教育이 人間教育이 되는 것은 國民이 內面化하게 되는 政治體制의 規範이나 價値觀은 政治體制에만 局限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生活領域과 聯關되는 性格의 것으로 社會統合을 形成하는 基盤이 됨과 동시에 國民 各自가 지향하는 삶 의 目標과 삶의 方式을 設定하는 基礎가 되는 性格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 狹의의 政治教育은 “社會秩序와 體制 내지 政治體系를 維持, 發展시키기 위한 國民의 支持 내지 合意基盤을 形成하는 教育的 努力過程”이라고 하면서 廣의의 政治教育과 狹의의 政治教育을 綜合하여 “한 國家가 그 生活共同體를 維持하고 發展시켜 나가기 위해 要求되는 바람직한 人間性을 形成하고 정치과정의 參與에 필수적인 知識과 能力, 態度, 自信 등을 포함하는 實質을 育成하는 教育的 努力”¹⁴⁾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民主主義國家에서의 政治教育은 民主主義 教育이 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內容은 民主的 政治參與가 된다. 民主主義는 教育 課程을 통하여 民主主義의 原理를 學習시키는 것보다는 政治家가 直接 民主主義를 實施하는 것이 가장 效果的이고 確實하다. 왜냐하면 民主主義는 어린시절부터 經驗함으로써 배우는 것으로 家庭에서, 學校에서, 社會에서 民主主義를 經驗하고 배우는 것이 가장 效果的이기 때문이다.

12) D. Heater and J.A. Gillespie, *Political Education in Flux*(London : sage, 1981), p. 4.

13) 朴容憲, “政治教育의 性格과 課題,” 『政治教育』(螢雪出版社, 1984), pp. 12~16.

14) 앞의 글, p.17.

Ⅲ. 體系水準의 接近法

政治教育의 체계수준의 접근은 정치체계에 대한 정치교육의 關係를 말하는 것으로 정치체계에 대한 政治教育의 役割, 內容 그리고 그 效果에 관한 問題이다. 정치교육이 정치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役割을 한다는 것은 教育을 통하여 政治的 安定과 理想을 실현하고자 했던 플라톤 등의 政治教育의 關心에서 잘 나타나 있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理想國家는 安定된 國家이며 국가의 安定을 維持하는 길은 시민들에게 적절한 市民的 價値를 가르치는 것이다. 공자도 체제의 安定을 維持하기 위해서는 政治教育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견해는 거의 모든 政治學者, 哲學者 그리고 思想家들의 主流을 이루는 것이었다.¹⁵⁾

정치교육과 정치체계와의 관계에서 교육은 政治體系에 대하여 (1) 어린이와 靑少年의 政治社會化 (2) 정치지도자의 選擇, 充員 및 訓練 (3) 사회와 공동체의 政治的 統合 (4) 특수한 利益 또는 壓力團體의 組織이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이러한 기능은 정치체계의 安定과 유지를 위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정치체계의 정치적 安定은 政治文化와 政治制度 사이의 相合의 여부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그러므로 政治體系의 安定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정치체의 規範을 따를 수 있는 政治文化의 育成과 政治體系가 環境으로부터 오는 緊張과 葛藤을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한 反應기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政治文化의 育成과 緊張과 葛藤을 해소하기 위한 反應기제가 바로 정치사회화로서의 政治教育인 것이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政治社會化, 政治的 充員, 政治的 統合의 機能을 수행함으로써 정치체계의 安定과 존속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¹⁶⁾

이스튼은 그의 一般體系論에서 정치체계가 그 활동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정치주체로부터의 投入過程(input)이 활발히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투입과정으로는 要求(demand)와 支持(support)가 있는데 요구는 결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完成品이 만들어지게 되는 原料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支持라고 하였다. 만일 支持가 없다면 요구는 만족될 수 없으며 目標을 둘러싼 衝突도 調整될 수 없

15) Dean Jaros, 앞의 책, pp. 9~12.

16) 政治에서의 教育의 役割에 관해서는, 權中周, “政治에서의 教育의 役割에 관한 研究,”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社會科學研究』 제19집(1992) 참조.

다. 支持는 要求라는 원료를 가지고 政策이라는 완성품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하는 힘으로 政治體系에 대하여 市民들이 가지고 있는 確信, 愛情, 信賴 등의 感情을 말한다.¹⁷⁾

그러므로 政治體系가 維持, 存續해 가기 위해서는 體系構成員의 支持가 있어야 하며 지지의 根源을 탐구하는 研究가 필요하다. 정치교육은 支持의 근원을 탐구하여 體系에 대한 支持를 確保하는 메카니즘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體系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政治權力的 正當性을 인식시켜 스스로 服從하는 마음을 갖게 하며 共同體 意識을 함양하여 건전한 社會秩序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치체계의 課業은 정치교육의 과정을 통하여 體系成員들을 길들임으로써 이루어 진다.

政治體系에 대한 지지라고 하면 흔히 未分化된 전체로서의 체계에 대한 지지를 생각하지만 一般的으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정치체계는 政治的 共同體 (political community), 政治體(regime), 當局者 혹은 政府(autho-rities)로 구성되어 있는 集合體¹⁸⁾으로써 가령 정치체계에 대한 지지가 줄어든다고 할 때 그것은 주로 體系의 어떤 部分에 대한 것일 뿐 다른 부분까지 그렇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성원이 政治支配者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憲政秩序에 대한 신뢰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政治的 共同體는 국가 혹은 國民的 一體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지지는 領土, 人種, 國籍 등과 같은 일반적으로 承認된 기준에 의하는 경우가 많으며 愛國心, 民族主義 등을 말한다. 공동체의 支持에 대한 社會化는 정치체계의 유지보강을 위한 강력한 무기이며 지지의 상실은 革命이나 舊習打破主義者의 좋은 구실이 될 수 있다.

政治體는 憲政秩序라고 부를 수 있는 政治體系의 부면으로 이스튼과 데니스는 정치체에 대한 지지가 정치체계가 存續하는데 가장 중요한 課業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정치체에 대한 支持의 喪失은 投入을 產出로 전환시키는 體系의 機能을 低下시켜 정치체계의 崩壞를 가져올 수 있다.

17) David Easton and J.Dennis, *Children in the Political System*(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9), p. 57.

18) David Easton, *A System Analysis of Political Life*(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1965), Part 3.

當局者 혹은 政府는 정치체계의 일상의 업무를 담당하는 體系의 성원으로 투입을 산출로 轉換하는 체계의 機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할 담당자에 대한 支持가 있어야 한다. 즉, 체계성원은 當局者에 대하여 호의를 갖어야 하며 당국자의 행위를 拘束力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이들 셋 중의 어느 하나라도 지지를 維持할 수 없는 경우에는 政治體系의 存續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¹⁹⁾

체계에 대한 支持 또는 非難은 체계의 성원이 체계와 관련하여 자신이 입게되는 利益이나 損害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一般화된 믿음과 確信에서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경우가 있다. 前者의 경우를 特殊의인 支持라고 하며 後者의 경우를 分散的 支持라고 하는데 분산적 지지는 盲目的인 忠誠이나 確固不動한 愛國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분산적 지지는 전쟁과 같은 危機를 당하여 체계가 의존할 하나의 備蓄分(reservoir)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체계가 持續해 가기 위해서는 체계 構成員의 분산적 지지를 유지하고 確固하게 할 수 있도록 政治教育에 注意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⁰⁾

정치체계와 관련한 政治社會化의 연구에서 정치사회화가 體系維持의 기능으로 政治體系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構造.機能主義者들도 마찬가지다. 파슨스(Talcot Parsons)는 社會體系의 機能으로 네가지를 들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패턴의 維持(pattern maintenance)로 이 機能은 그 사회의 文化體系의 規範에 順應하는 態度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사회화과정을 통하여 個人이 사회와 정치체의 役割期待를 充足시키도록 교육시키는 것이다.²¹⁾ 알몬드(G. A. Almond)는 모든 政治體系가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중시하고 投入過程의 機能으로 네가지 排出過程의 기능으로 세가지를 들었다. 여기에서 정치사회화는 政治的 充員의 기능과 함께 投入과정의 기능에 속하게 된다. 그 이후 체계의 能力을 도입하여 動態的 理論으로 재구성한 發展論的 接近에서는 체계유지와 적응기능을 獨立시켜 정치사회화와 충원기능을 더욱 강조하였다. 그리고 政治社會化의 機能과 유형에 관련된 諸構造를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분류하였다.²²⁾

19) D. Easton and J. Dennis, 앞의 책, pp. 58~60.

20) 앞의 책, pp. 61~64.

21) Talcott Parsons and Neil Smelser, *Economy and Society*(Glencoe Ill.: Free Press, 1956), pp. 16~17.

22) G. A. Almond and J. S. Coleman, *The Politics of Developing Area*(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1967), pp. 28~30.

첫째, 정치사회화는 현재적, 潛在的일 수 있다는 것과 둘째, 政治社會化의 유형은 特殊的이거나 分散的일 수 있다는 것 셋째, 서로 다른 사회에 있어서 정치사회화 기능은 個別的 普遍的 요소의 結合되는 방식에 따라 비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넷째는 정치사회화 기능은 情緒的, 道具主義的 要因의 결합의 방식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치사회화(政治教育)은 한 사회의 政治文化와 하위문화의 유형을 洞察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서 政治文化의 特質과 要素가 流入되고 이러한 요소가 維持, 改善되는 단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치사회화 기능의 분석은 정치적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고 다른 정치기능의 연구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체제와 관련한 政治教育의 기능에 관한 또 하나의 理論的 구성으로 한 사회의 체계의 유지는 強制的 武力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의에 基礎한 합의의 獲得이라는 입장에서 파악하는 헤게모니(hegemony) 이론이 있다. 헤게모니는 支配와 統制를 뜻하는 것으로 모순이 많은 자본주의 체계가 崩壞하지 않고 支配階級인 자본가 계급이 계속 支配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그람시에 의하여 體系化 되었다.

헤게모니이론에서 政治教育이 중요한 것은 헤게모니는 政治權力을 掌握한 집단이 그들의 統治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支配 이데올로기를 피지배계급에 전달하려는 試圖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헤게모니는 지배계급이 정치체제를 계속적으로 維持시키기 위하여 象徵을 操作하고 宣傳과 檢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²³⁾ 支配階級이 統治力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피지배계급으로 하여금 그들이 意圖한 바에 따라 特定の 社會的 習慣이나 정치적 신념을 習得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習慣이나 信念은 정치교육을 통하여 촉진되어진다. 그러므로 헤게모니이론은 支配階級이 피지배계급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유지하는 社會的 諸價値와 秩序를 받아들 이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社會化過程이나 媒體를 강조한다.²⁴⁾ 그람시는 헤게모니 계급지배에 있어서 學校機構(初等教育和中等教育), 文化機構(博物館과 圖書館), 情報의 組織化, 삶의 樣式, 都市主義, 以前的 生産樣式으로부터 繼承될 수 있는 기구들(敎會와 그 知識人들)을 중요시 하였다. 그 중에서 학교는 문화적 이념적 헤게모니의 傳授者이며 選擇의 傳統이며 문화의 統合者여서 헤게모니

23) R. E. Dawson, K. Prewitt, and K. S. Dawson, 앞의 책, p.24.

24) 앞의 책, p.25.

과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치교육의 체계수준 접근과 관련하여 특히 新生國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國民形成(nation building)의 문제이다. 국민형성은 종래에 部族的, 人種的, 地域的, 言語的, 宗教 등에 연결되었던 一體感과 忠誠을 고차적인 국가와 연결하여 국가에 대한 忠誠心과 使命感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신생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국민형성 뿐만 아니라 權威의 正統性과 통치력의 사회저변 확대 그리고 參與, 統攝 등도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政治教育의 役割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政治教育의 체계수준의 접근은 政治體系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정보나 價値, 期待 등이 政治體系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지며 정치체계가 體系의 維持를 위하여 여러 社會的 媒體를 통하여 시도하는 시민교육에 關心을 갖는 것이다.

IV. 個人水準의 接近法

정치교육은 교육을 시키는 側面보다는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의 敎育效果가 중요하다. 피교육자가 교육의 내용을 認知하고 교육이 의도하는 바의 정치적 정향을 갖으므로써 정치교육은 개인의 政治的 態度 및 行態에 영향을 갖게 된다. 政治教育의 개인수준의 접근은 개인의 政治的 態度 및 行態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諸規準과 意識이 어떻게 習得되느냐의 문제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개인수준 접근법의 中心課題는 “언제, 왜, 어떻게 個人은 그들의 특정 政治的 정향을 습득하게 되느냐”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그린슈타인(F.I.Greenstein)이 어떻게 研究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提起하고 設定해 놓은 概念圖式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who), 무엇을 배우는가(learns what), 누구로부터(from whom), 어떤 條件 하에서(under what circumstances) 그리고 어떤 結果를 가지고(with what effects) 등이다.²⁵

25) F. I. Greenstein, *Children and Politics*(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1976), p.12.

個人的 觀點에서의 정치교육은 개인의 政治學習過程이며 이러한 과정은 일생을 통하여 계속된다. 대부분의 學者들은 어린이 時期에 형성된 정치정향이 成年生活의 政治的 展望의 형성의 根源이 된다고 생각하여 정치에 관한 어린이들의 態度形成 過程의 연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가장 의의있는 政治學習의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意見이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早期模型(the primary model), 後期模型 또는 昨今模型(the recency model), 中間時期模型(the intermediate-period model) 등이다.²⁶⁾

早期模型은 아동초기가 가장 의의있는 政治學習이 일어나는 시기라는 것으로 정치에 대한 주요정향은 兒童初期에 습득된다는 것이다. 個人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찍 획득한 정향을 維持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傾向으로 말미암아 초기에 획득한 정치정향이 나중에 하는 政治選擇을 형성하고 構成한다는 것이다. 後期模型(昨今模型)은 성인들의 정치관은 쉽게 변할 수 있다는 見解에서 비롯된 것으로 政治學習 경험이 성인으로서의 當面한 決定과 행동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影響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成人의 政治的 態도와 行動을 理解하는 관건은 兒童으로서의 오래 전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當時의 生活에 있는 것이 된다. 中間時期模型은 兒童初期와 成人期의 중간시기를 政治教育의 가장 적절한 시기로 보는 것으로 兒童後期和 青年前期를 강조한다. 兒童後期和 青年前期에서 개인은 政治, 社會問題를 이해하고 能力을 가장 발달시키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개인의 政治定向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정불변하다고 할 수도 없다. 政治的 自我는 발전을 멈추지 않으며 政治學習은 일생을 통하여 계속되는 과정으로 學習이 이루어지는 전과정이 개인의 政治的 態度形成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政治學習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成人以前時期라고 하며 따라서 이 時期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學校教育이 중요시 되는 것이다.

도오슨(R.E.Dawson)등은 成人以前期(preadult years)를 兒童前期(early childhood 5세-9세), 兒童後期(late childhood 9세-13세), 青年期(adolescence 13세-18세)의 3기로 나누어 정치관의 發展과 變化, 發展類型을 밝히

26) R. E. Dawson, K. Prewitt and K. S. Dawson, 앞의 책, pp.77~81.

고 있다.²⁷⁾ 그리고 成人 以前期의 정치학습 양식을 정치적 자아의 發展 側面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理論으로 설명한다.²⁸⁾

첫째는 精神力學的 理論(psychodynamic theories)으로 프로이드의 精神分析學的 概念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理論은 개인의 정치정향은 개인의 內的 要求에 대한 反應이라는 것으로 유아기와 兒童初期의 경험이 개인의 요구와 人性力學을 形成하는데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政治世界에 대한 관점은 그들의 內的 要求와 人性力學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채택된다.

둘째는 社會的 學習理論(social learning theories)으로 개인이 환경을 통해 받게 되는 여러 메시지들이 個人의 政治觀을 決定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理論은 개인이 그의 環境으로부터 얻는 刺激을 강조하며 또한 自身을 둘러싸고 있는 環境이 제공하는 特定的 觀點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중점이 있다.

세째는 認知的 發達理論(cognitive-developmental theories)으로 이 이론은 環境과 그 환경을 다루는 個人의 能力開發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성숙한 個人이 자신의 環境에서 겪은 일들을 어떻게 理解하고 그에 反應을 보이는가 하는 문제는 개인의 思考能力의 발전에 달려 있다고 본다.

소미트(Albert Somit)와 페터슨(Steven A. Peterson)은 政治學習 時期에 대하여 약간 다른 見解를 가지고 있다.²⁹⁾ 그들은 개인의 정치관은 환경이나 狀況의 變化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가장 最近의 정치학습이 가장 큰 效果를 갖는다고 한다. 따라서 정치적 학습은 一生을 통하여 계속되는 과정으로 보며 특히 成人期는 가장 비판적인 시기이므로 정치학습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정치학습에 있어서 環境的 要因을 중시하는 見解는 많이 있다. 특히 프로만(L.A. Froman Jr.)은 個人의 政治學習에서 個人의 環境(社會化媒體)과 퍼스널리티(社會化的 結果로서의 person-ality)의 相互作用을 強調하여 퍼스널리티의 유형과 政治的 態度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³⁰⁾ 다시 말하면 個人의 퍼스널

27) 앞의 책, pp. 49~55.

28) 앞의 책, pp. 69~72.

29) Albert Somit and Steven A. Peterson, "Political Socialization's Primacy Principle: A Biosocial Critiqu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 No. 3 (July 1987), p. 205.

30) Lewis A. Froman Jr., "Personality and Political socialization," *Journal of Politics*, Vol. 23 (1961), pp. 341~352.

러티가 政治社會化 환경과 정치적 태도사이의 媒介變數가 되는 것이다. 렌손(S. A. Renshon)은 政治學習의 환경 및 개인의 力動性을 증시하여 개인성이 결정되는 家族의 構成이나 權威關係에 관심을 갖는다.³¹⁾ 가족의 관계와 태도는 獨立變數로서 개인의 統制力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 統制力은 매개변수로서 從屬變數인 정치적 信賴와 效能性에 相關性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개인의 政治的 態度를 설명하는데 社會的 性格을 說明變數로 보는 견해도 있다. 김재영교수는 사회적 성격은 政治社會化의 環境과 깊이 연관되고 있으며 또한 政治的 態度의 형성에 相互作用한다고 한다.³²⁾ 여기서 社會的 性格은 개인의 퍼스널리티적 側面에서 파악된 個人의 性格이며 특정 사회의 歷史的, 社會的, 道德的 맥락에서 認定되고 상당히 다수인간에 공유하고 있는 價値, 信念에 바탕한 態度라고 한다.

政治教育의 개인수준의 접근은 개인이 정치정향을 습득하는 過程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며 개인의 動態的인 성격을 주된 說明變數로 삼는 것이다.

V. 過程的 接近法

政治教育에 관한 過程的 接近은 개인의 정치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段階를 중심으로 개인의 政治定向에의 정치교육의 役割과 그 效果를 探究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政治化의 過程(politicizing process)은 세살 때부터 시작되며 政府와 黨派(政黨)에 대한 정향도 13세 정도가 되면 거의 確立된다고 한다. 이 때가 되면 政治的 共同體의 象徴에 대한 認識은 물론 政治的 권위상도 갖게 된다는 것이다.³³⁾ 이스튼과 데니스는 미국 國民學校 어린이들의 政治的 權威에 대한 認識과 態度形成에 관하여 그 과정의 段階에 따라 政治化, 個人化(擬人

31) Stanley A. Renshon, *Psychological Need and Political Behavior*(New York: The Free Press, 1976), pp. 1~11.

32) 김재영, 『정치사회화론』(서울: 대왕사, 1982), pp. 52~53.

33) David Easton and Robert D. Hess, "Youth and the Political System," in S. M. Lipset and Leo Lowenthal(eds.), *Culture and Social Character*(New York: The Free Press, 1961), pp. 229~243.

化), 理想化, 制度化의 네과정으로 나누어 說明한다.³⁴⁾

政治化(politicization)는 어린이들의 公的領域과 私的領域의 區別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이 社會化過程을 통하여 부모의 權威 외에 정치적 權威構造를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美國 어린이들은 보통 8학년까지 정치화된다고 한다.

個人化(또는 擬人化)(personalization)는 어린이들의 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認知를 말하는 것으로 어떤 특정의 政治的 權威가 어린이들의 눈에 현저하게 드러날 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政府는 어린이들에게 抽象的인 것이 아니고 具體的으로 알 수 있는 인물 즉 大統領이란 形態가 되는 것이다.

理想化(idealization)는 개인화의 段階에서 사실상 이루어지며 권위에 대한 이상화는 公的機構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理想化하기 때문에 公的인 政府나 共同體에 애착을 느끼게 하며 확산된 支持를 가능하게 한다. 理想化는 어린이 뿐만 아니라 성인의 權威構造에 대한 확산된 지지의 根源이 될 수도 있다.

制度化(institutionalization)는 어린이가 個人화된 대상에 대한 초기의 감정을 政治的 制度로 바꾸는 단계이다. 어린이에게 있어 政府는 大統領의 형태였으나 대통령 뿐만 아니고 組織을 가진 制度라는 것으로 認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認識은 어린이가 이미 政治的 權威에 대하여 갖고 있는 적극적인 紐帶感으로부터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네과정을 통하여 어린이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政治體系의 구조와 정치적 권위관계를 認識하게 되며 정치적 인물들에게 肯定的 感情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感情은 體系에 대한 擴散的, 分散的 支持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社會化過程의 아주 初期局面에 관하여는 어린이 발달에 관한 心理學的 理論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릭슨은 사람은 8단계의 과정을 거쳐 成長한다고 하면서 초기의 社會化的 過程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³⁵⁾

(1) 信賴 대 不信(trust vs mistrust), (2) 自律 대 懷疑(autonomy vs doubt), (3) 主導性 대 罪意識(initiative vs guilt), (4) 勤勉性 대 劣等感(industry vs inferiority), (5) 正體 대 昏迷(identity vs confusion), (6) 親近性 대 孤獨感(intimacy vs isolation), (7) 普遍性 대 自己陶醉(generativity vs self

34) D. Easton and J. Dennis, 앞의 책, pp. 391~392.

35) Peter H. Merkl, *Modern Comparative Politics*(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0), pp. 94~99.

-absorption), (8) 滿足 대 絶望(integrity vs despair) 등이다. 여기에서 네번째 까지가 어린이 단계이고 다섯번째가 自我正體 確立이라는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다.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개인은 役割混亂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自我正體感의 危機를 가져올 수도 있다. 여덟번째의 마지막 段階에서 인간은 완전히 成熟하게 되고 개인은 비로소 世界 秩序 속에 자기의 生을 수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개인과 政治體系와의 統合이 보다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個人은 정치체계가 그에게 부여하는 政治的 役割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어린이의 발달에 관한 에릭슨의 단계는 心理的인 側面에서 파악한 것으로 政治敎育의 연구에서 주요한 것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社會化過程은 처음부터 정치적 지향이 아니고 그 社會의 특수한 文化에의 誘導 등의 과정을 거쳐 점차 정치정향을 형성해 간다. 그리고 直接的으로 政治的 役割을 담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社會化過程을 파이는 基本的 社會化, 政治社會化, 政治充員의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³⁶⁾ 基本的 社會化는 그 사회의 특수한 文化에의 유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 의하여 어린이는 그 사회의 成員이 되는데 필요한 基本人格의 모든 요소를 터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一般文化에 의하여 社會化되는 것을 말한다.

두번째의 政治社會化 단계에 이르러 개인은 政治體系를 알게되고 정치문제에 대한 理解와 判斷을 하게 된다.

세째의 政治的 充員段階는 개인이 적극적인 政治的 役割을 擔當하는 단계로 政治體系와 사회와의 連繫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受動的 市民 또는 傍觀者로서의 역할을 떠나 정치과정의 적극적인 參與者가 되며 일반적으로 政治社會化의 과정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政治敎育에서 중요한 것은 두번째의 政治社會化 단계로 정치적 태도의 獲得, 變化, 安定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다. 헤스와 토니는 어린이들의 정치학습의 방법으로 네가지 형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³⁷⁾

첫째는 蓄積型으로 어린이의 정치에 대한 意識과 行態는 가르친 것이 축적된 것

36) L. W. Pye, *Politics, Personality and Nation Building*(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62), pp. 44~45.

37) Robert D. Hess and Judith V. Torney,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Attitudes in Children*(Chicago, Ill.: Aldrine Pub. Co., 1970), pp.19~22.

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따로따로 배운 것은 반드시 論理的인 聯關性을 요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여 어린이 自身の 感情이나 態度가 政治體系에 대한 情報의 유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모형을 適用하면 어떤 資料이든 어느 시기에나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個人間的 轉移型으로 이는 어린이가 이미 상당한 개인 상호의 경험과 滿足感을 가지고 분명하게 政治社會化에 接近하고 있는 것을 전제한다. 어린이는 家庭이나 학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權威的人物에 대한 다면적 關係를 발전시키는데 이러한 一連의 關係에서 어린이는 그가 어린이 初期에 經驗한 人間關係와 비슷한 형태의 相互關係를 확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가 政治的 世界와 權威的人物을 인식하면서 그는 그가 발전시켰던 非政治的 感情을 政治的人物에게 轉移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권위적 인물로서 大統領에게 호의적 정향을 보이는 것은 부모에 대한 감정이 政治世界로 轉移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째는 同一視型으로 社會學習 중에서 가장 광범하고 끊임없는 방법으로 模倣을 강조한다. 전이형과 다른 것은 전이형은 한 사람에 대하여 발전된 태도가 새로운 대상에 適應할 수 있도록 전이되는 것이며 동일시형은 주어진 對象에 대한 態度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直接 模倣하는 것이다.

네째는 認識發展型으로 어떤 종류의 概念과 情報를 다루는 능력이 정치현상에 관하여 習得할 수 있는 理解力을 한정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형은 蓄積型과 대조되는 것으로 어린이의 認識發展 水準에 맞춰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社會化는 認識發展의 단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의 네가지 模型은 정치학습의 서로 다른 과정에 적용되며 정치학습의 效果的인 방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公式的인 政治教育과 政治的 能力 사이에는 비교적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³⁸⁾ 그러나 어린이가 어느 段階에 이르면 그들의 정치정향이 限界點에 이르러 정치학습이 더 이상 效果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美國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한 調査에 의하면 학교의 정치교육에 의하여 教育成果가 있었던 학생들은 대체로 中學校 때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거나 또는 그러한 교육을 받지 않은 學生이다. 그리고 大部分의 학생들은 학교의 政治教育 受講 정도에 의하여 가지고 있는 政治的 情報의 量에 별 차이가 없었다. 그것은 政治教育의 內容이 대부분의

38) G. A. Almond and S. Verba, *The Civic Culture*, 앞의 책, p. 361.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必要 이상의 過多한 情報提供으로 정치교육을 받아도 별효과가 없는 것이다.³⁹⁾ 이러한 현상을 탱톤은 過多教育論이라고 하고 이는 학교의 反復된 교육 뿐 아니라 通信媒體나 公式組織 등 다른 媒體에서 행하고 있는 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VI. 結 論

政治教育의 접근방법에는 體系水準에서 接近하는 巨視的 方法과 個人水準에서 접근하는 微視的 方法 그리고 政治學習의 過程을 중심으로 하는 過程的 接近法이 있으며 각기 나름대로의 理論的 타당성이 있음을 검토하였다.

體系水準의 接近은 政治體系에 대한 政治教育의 役割과 그 效果를 중심으로 政治體制的 安定과 體制維持의 側面을 강조한 것이고 個人水準의 接近은 개인의 政治的 態度 및 行態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規準과 意識이 어떻게 習得되느냐의 문제를 중심으로 接近하는 것이다. 過程的 接近은 개인의 政治學習이 이루어지는 過程이나 段階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微視的 水準의 接近에 속한다.

一般的으로 정치교육은 體系水準의 政治的 規準을 전수하며 따라서 그 내용은 巨視的인 眺望에서 이루어지나 이를 터득하는 分析單位는 기본적으로 個人들이다. 다만 개인들은 體系水準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기 어렵고 어디까지나 既存의 社會 規範이나 이들에 의하여 강조된 價値를 그 內容으로 배우는 데 불과하다. 政治教育에서 강조하고 있는 內容은 政治社會化에 비하여 특정 價値指向的이며 한 사회를 대표하고 있는 政治體制 및 理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政治教育에서 體制的 安定과 維持를 강조하는 것은 政治教育을 담당하는 教育者의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그 實質的인 教育效果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政治教育의 成果는 물론 교육의 內容을 被教育者가 認知하고 받아들여 教育者가 의도하는 바대로 政治定向이 형성되어 體系的 安定과 維持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體系水準의 접근도 결국에는 개인의 政治的 態度形成의 문제로 귀착

39) Kenneth P. Langton, *Political Socialization*(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9), p. 99.

된다. 결국 정치교육의 目的인, 教育者가 의도하는 바의 피교육자의 政治的 態度의 形成은, 그 內容은 體系水準의 巨視的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으나 態度의 習得過程은 어디까지나 個人水準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過程中心의 接近은 個人水準의 接近에 비하여 개인의 政治學習이 이루어지는 過程이나 段階를 중심으로 탐구하지만 個人水準의 接近도 過程이나 段階를 무시하고서는 올바른 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단지 強調하는 정도의 差異에 불과하다. 政治教育에 관한 過程的 接近法 중에서 특히 學校의 敎科課程과 관련하여 有用한 것은 랭턴의 過多教育論이다. 美國의 경우에 政治教育이 효과가 있는 것은 基礎的 政治定向이 형성되는 어린시 時期이며 高等學校 이상은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政治教育의

內容이 대부분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內容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를 參考하여 敎科課程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政治教育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從來의 教育이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普遍的인 民主主義의 觀念과 理想만을 가르치고 民主主義가 具體的인 狀況속에서 어떻게 자라나야 하며 民主主義를 위해서 어떤 現實的인 條件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疏忽히 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時代的, 國際的, 社會的 狀況들 속에서 民主主義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教育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實際的인 民主主義 社會의 建設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政治教育은 現實的인 문제에 關心을 갖음으로써 實際的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1. 국내문헌

- 權中周, "政治에서의 敎育의 役割에 관한 研究,"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社會科學研究』 제19집(1992).
- 김재영, 『정치사회화론』(서울: 대왕사, 1982).
- 朴容憲 譯, 『政治敎育』(大韓敎科書株式會社, 1982).
- 朴容憲, "政治敎育의 性格과 課題," 『政治敎育』(螢雪出版社, 1984).

2. 국외문헌

- Almond G. and Verba, S., *The Civic Culture*(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3).
- Almond, G. A. and Coleman, J. S. *The Politics of Developing Area*(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1967).
- Easton, D., *A System Analysis of Political Life*(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1965).
- , "The function of formal education in a political system," *School Review*, Vol. 65(1957).
- , and Hess, Robert D., "Youth and the Political System," in S. M. Lipset and Leo Lowenthal(eds.), *Culture and Social Character*(New York: The Free Press, 1961).
- , and Dennis, J., *Children in the Political System*(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9).
- Froman, Lewis A., Jr., "Personality and Political socialization," *Journal of Politics*, Vol. 23(1961).
- Greenstein, F. I., *Children and Politics*(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1976).
- , "A Note of the Ambiguity of Political Socialization Definitions, Criticisms and Strategies of Inquiry," *Journal of Politics*, Vol. 32(1970).

- Heater, D. and Gillespie, J. A., *Political Education in Flux*(London: sage, 1981).
- Hess, Robert D. and Torney, Judith V.,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Attitudes in Children*(Chicago, Ill.: Aldrine Pub. Co., 1970).
- Jaros, Dean, *Socialization to Politics* (New York: Praeger Publisher, Inc., 1973).
- Langton, Kenneth P., *Political Socialization*(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9).
- Massialas, B. G., *Education and Political System*(New York: Addison- Wesley Pub. Co. Inc., 1969).
- Merkel, Peter H., *Modern Comparative Politics*(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0).
- Parsons, Talcott and Smelser, Neil, *Economy and Society*(Glencoe III.: Free Press, 1956).
- Pye, L. W., *Politics, Personality and Nation Building*(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62).
- Renshon, Stanley A., *Psychological Need and Political Behavior*(New York: The Free Press, 1976).
- Somit, Albert and Peterson, Steven A., "Political Socialization's Primacy Principle: A Biosocial Critiqu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 No.3(July 1987).
- Tapper, Ted, *Political Education and Stabilit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6).